

어항협회, 어촌·어항·어장 사진전 개최 바다의날 기념행사장에서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31일 바다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어촌·어항·어장 사진전을 개최한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장(충남 대천해수욕장 주변)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60점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 어촌·어항·어장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한국어항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어촌어항사진 공모전 입상작과 어항 항공촬영 사진들이다.



춘계체육대회 개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4월 30일 서울 북한산에서 춘계체육대회를 실시했다.

크린오션호, MBC <내친구들의 세상>에 방영

MBC <내친구들의 세상> 제작팀은 바다의 날을 기념해 바다관련 체험과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어항협회가 운영중인 다기능 해양 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린오션호의 주요 장비를 취재 5월 27일 오후 4시 방영됐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실시

부산 사하, 기장, 충남 보령, 전남 목포, 여수 등지에서

바다 쓰레기가 돈 된다.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장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와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계약을 맺고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처리 업무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매 시범 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인양한 페어구, 페로프, 페비널 등 해양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이를 수매하는 것.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별도의 쓰레기 인양작업을 하지 않고도 저비용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바다쓰레기가 돈 된다

조업 중 인양된 페어구, 페로프, 페비널 등 해양쓰레기를 항구에서 수매합니다

어업인들이 수매해 처리합니다

- 수매기간: 2006. 5. ~ 2006. 8.
- 수매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장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 수매대상: 페어구, 페로프, 페비널 등 해양쓰레기
- 수매방법: 어업인들이 항구로 가져오면 수매합니다
- 수매대상: 어업인들이 수매한 해양쓰레기
- 수매대상: 어업인들이 수매한 해양쓰레기

사업을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24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한국어항협회이외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도 대행하며 전국 11개 단위수협에서 실시된다. 지구별 수협 쓰레기 집하장에서 마대 40l 1포당 4,000원에 수매하며 단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사업은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투기억제 심리를 일깨우고 저비용으로 해양환경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양정화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